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 <b>인천의 꿈, 대한민국의 미래</b>
		배포일자	2022년 7월 28일(목) 총 2매	
담당 부서	위생정책과	담 당 자	• 가공식품담당      김봉희 ☎440-2796 • 담당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김민애 ☎440-2799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시, 두부 즉석판매제조업소 108개소 위생관리 점검**  
**- 8.5일까지, 여름철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사전에 방지코자 -**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이 높은 시기를 맞아 즉석판매제조업소(두부류) 총 108개소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식품위생 지도·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즉석판매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유형 중 온도, 습도에 민감한 두부류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.

주요 점검사항은 ▲품목제조보고 신고여부 ▲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▲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▲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▲부패·변질 원료 사용 ▲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·보관 ▲작업장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이다. 아울러,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.

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, 군·구에 해당내역 통보 후 개선명령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속히 실시하고, 지속적으로 해당 업체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.

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“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를 맞이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#### <사진>

